

오백예순 돌 한글날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말이 참 정겹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널리 퍼신 지 오백예순 돌이 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각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여든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번 한글날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부터 국경일로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비롯해 한글 사랑을 실천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입니다. 유네

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고, 세계 언어학계도 한글을 가장 뛰어난 표현력과 실용성을 가진 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맹률은 한글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글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한글의 탄생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치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문자가 있는데도 백성을 위해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던 일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국민의 불편을 살피려 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국민 간의 소통을 막아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 창제 당시에 반대와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섬기는 데 어긋나고, 백성을 누르고 다스리는 데 별로 이롭지 않은 일에 왜 그렇게 힘을 쏟느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계급적 세계관을 뛰어넘어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던 민본주의적 개혁정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또한 자주적 실용주의와 창조정신의 백미입니다. 만약 세종대왕께서 한자만을 고집하던 지배층에 굴복하거나 중인들이 쓰던 이두에 만족했다면 한글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과학적인 문자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단한 노력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자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밖에 우리에게 맞는 농업기술과 의학을 집대성하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치철학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

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창조성, 그리고 자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
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큰 흐름을 이룰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전략에 힘을 모
으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말, 우리글은 문화 발전의 뿌리입니다. 좋은 말과 글이 좋은 생각을 만들
고 좋은 생각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것을 계기로 우리말과 글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켜 나갈
시다. 그래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갑시다.

정부도 한글의 정보화·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다시 한번 경축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